

소중한 공기의 오감만족

서울 연가초등학교 4학년

강은서

엄마의 환한 웃음처럼

밝은 공기가

나의 눈을 반짝 거리게 한다.

엄마의 달달한 냄새처럼

상쾌한 공기가

나의 마음까지 상쾌함으로 듬뿍 적신다.

엄마의 포근하고 따뜻한 품처럼

따스한 공기가

나의 마음까지 햇볕이 들게 해준다.

엄마의 책 읽어주는 소리처럼

신선한 공기가

나의 귀에서 예쁜 선율을 만들어 낸다.

엄마의 맛있는 음식처럼

살랑살랑 불어오는 공기가

나의 코를 킁킁거리게 만든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엄마처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기가
나의 오감을 춤추게 하고,
나의 오감을 행복하게 한다.